

'새만금 백년대계, 한국 넘어 세계를 리드하다'

2025년 새만금 대토론회 개최... 새만금 특별지체 설립·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관광정책 등 논의

새만금사업법도민지원위원회는 새만금 사업의 범국민 공감대 형성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18일 전주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2025년 새만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 백년대계, 한국을 넘어 세계를 리드하다'라는 주제로 김중훈 도 경제부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새만금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 주요 논의주제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새만금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 해양문화 및 생태환경에 기반한 새만금 관광정책 방향 등으로 발제는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 정용 원광대학교 교수, 광병선 전 군산대 총장이 맡았다. 먼저, 이남호 전북연구원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새만금 백년대계라는 아젠다로 새만금 개발촉진을 위한 공공주도 기반시설 공급, 토권증권 도입 등을 통한 개발사업 투자방식 다변화, 민간투자 전담기구 설립,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다음 발제자인 박재희 교수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질 새만금에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지역 간 협력 강화와 투자유치, 인프라 조성, 행정 효율성을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설립을 제



18일 전주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2025년 새만금 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했으며, 정용 교수는 그간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물산업들을 기반으로 물 재이용, 담수효율성 등을 IT와 연계한 통합물관리시스템인 스마트워터그리드 시범지역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광병선 전 군산대총장은 네덜란드 등 해외 간척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만금의 역사와 자연환경, 해양문화 등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환경 관광명소를 조성하여 새만

금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관광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정기 전북자치도 의원, 최정호 전국도교통부 차관, 전영욱 군산대 교수, 박영기 전북대 교수, 광동희 전북대 교수, 최영기 전주대 교수가 참석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진 새만금사업법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를 중요 국가 프로젝트로 단순한 개발을 넘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미래비전을 더욱 구체화하여 새만금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 박차

12개 부서 협력해 '기업인력양성 TF' 회의 개최 현장 맞춤형 지원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인력양성 TF'를 구성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업별 인력 수요 예측 및 맞춤형 교육훈련,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부서별로 추진 중인 인력양성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업애로해소과, 일자리민생경제과, 기업유치과, 예산과를 비롯하여 이차전지 단산산업과, 교육협력추진단 등 인력양성사업을 담당하는 8개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산업별 인력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맞춤형 인력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로 △산업별 부족 인력 분석 △교육훈련 및 취업

정보 제공 △우수 교육훈련기관 발굴 및 협업 △일자리 매칭 지원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인력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 인재 양성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은 전북 경제 도약의 핵심 과제"라며, "TF 운영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적극 협력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34억 투입 119구급차 보장

특수구급차 19대 교체·음압구급차 4대 신규 배치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민들이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의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구급차 보장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34억2,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노후화된 구급차 19대를 최신 의료장비를 탑재한 특수구급차로 교체하고, 감염병 대응에 특화된 중형음압구급차 4대를 신규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총 124대의 구급차를 운영하며 정기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의 성능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긴급 출동 지원 문

제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형음압구급차는 2022년부터 권역별 응급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배치돼 왔다. 현재 도내에서 8대가 운영 중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제·장수·임실·부안 지역에 4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모든 소방서에 최소 1대 이상의 중형음압구급차가 보급돼, 총 15대가 현장에서 운용될 전망이다. 이번 보장사업을 통해 차량 고장으로 인한 응급 출동 지연 가능성을 줄이고, 감염병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위험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도, 도내 대학 '찾아가는 소비자이동상담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학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불법 방문판매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비자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실은 18일 전북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9개 대학교를 순회하며 진행되며, 대학생들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동상담실은 한국어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운영되며, 대학생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방문판매, 불법 피라미드, 인터넷 쇼핑물 피해 등의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직접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재영 전북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사전 예방 활동부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산단 인프라 혁신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UP

2026~2030년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위한 시군 대상 설명회 개최 5년간 75개소 산단 기반시설 체계적 개선... 기업 활력 증진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도내 75개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18일 도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연차별 정비계획과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정비 계획은 202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기존 농공단지 중심의 지원을 확대해, 도내 산업단지 생산액의 68%를 차지하는 일반산업단지까지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비 대상은 △조성 후 20년이 경과

한 일반산업단지 17곳 △10년이 지난 농공단지 58곳으로, 도로 정비, 상·하수도 교체, 주차장 조성, 관리동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계획수립은 시군과 협력해 단계별로 추진된다. 2025년 3~4월 시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월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한 뒤, 6월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시급성과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고, 사전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예산 중복을 방지하는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산업단지를 젊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년 산단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 공장의 청년 친화적 리뉴얼,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 등이다. 아울러, 산단환경조성사업(출연) 통합세부운영요령 개정사항도 설명했다. 해지·협약 변경, 온라인 관리시스템 등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사업 추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시군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정비의 큰 방향을 설정했다"며 "입주기업과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업단지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초등돌봄교실 학생에 과일간식 지원

394개 학교·1만3700여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3년 종료되었으나, 전북자치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394

개 학교, 13,7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30회 과일 간식을 지원 계획이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과일 간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구성되며, 세척·절단 등 가공 과정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도는 2월까지 시설·장비, 작업 공정, 위생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과일 간식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이만호 기자

- 공 고 -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총회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총회를 알리고자 합니다.

#일시 :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 티하우스레몬(서울 강남터미널 2층) / 중식(시래마을)

- 안 건 -

- 결산 보고 ● 감사 보고
- 부동산매도건 ● 종중규약변경건
- 기타 안건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회장 박철진

군산시 공고 제2025-661호

개야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야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 행정예고기간 : 2025. 3. 19. ~ 4. 8.(20일간)
- 의견제출기간 : 2025. 3. 19. ~ 4. 8.(20일간)
- 공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치	유형	지정내용	면적(㎡)	지정사유	비고
개야도지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산1-20번지 일원	붕괴 위험지구	가	20,000	급경사지 붕괴로 상습적인 주거지 및 인명 피해발생	

-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예정)

지구명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사업시기	비고
개야도지구	33,094	홍벽설치, 산마루옹구 설치, 식생보호공설치, 낙석방지책 설치 등	2026년(예정)	

-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063-454-6030)

다. 제출기한 : 2025. 4. 8. 18:00까지

라. 제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의처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063-454-3862)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5년 3월 19일 군산시청